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83호 【루계 제24696호】 주체103(2014)년 10월 10일 (금요일)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사 설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온 누리에 끝없이 빛을 뿌릴것이다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위업의 위대한 개척자, 령도자이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태양의 영상을 천만군민이 숭엄히 우러르고있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경건한 마음을 안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뜨거운 감사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있다.

조선로동당 창건, 이것은 자주시대 새형의 혁명적당의 탄생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였으며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온 의의깊은 사변이였다. 주체혁명의 줄기찬 전진과 반제반미대결전에서의 련전련승,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의 위력과 새로운 주체100년대진군의 힘찬 활력은 우리 당창건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오늘과 같이 백두산대국의 억센 기상이 온 누리에 힘있게 떨쳐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이 강하고 위대하기때문이다.

세상에는 조선로동당처럼 세기를 이어 자기의 창건자, 령도자의 사상과 존함으로 빛나는 혁명적당은 없다. 오늘 우리 당이 지닌 높은 존엄과 권위는 곧 수령의 당으로서의 존엄이며 권위이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 바로 여기에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본태가 있고 영원한 존엄과 영광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창건자이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력사는 가장 로숙하고 세련된 당건설령도사로 빛나고있다.

우리 당의 력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무으신 《ㅌ.ㄷ》에 그 시원을 두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ㅌ.ㄷ》의 깊고도 억센 뿌리에 기초하여 우리 당을 창건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의 강력한 정치적참모부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이 땅우에는 자주적운명개척의 새로운 력사적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로부터 반세기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당의 최고수위에서 당건설과 당활동을 현명하게 이끄시며 혁명적당건설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리론은 주체적당건설의 고귀한 지침이였고 수령님의 령도는 우리 당이 로선상착오나 우여곡절도 없이 사회주의위업을 확신성있게 전진시켜올수 있게 한 원천이였으며 수령님의 덕망은 전당을 혁명적동지애로 굳게 묶어세운 생명수였다.

력사에는 당을 조직하고 이끈 정치가들이 많지만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같이 10대에 혁명적당건설의 참다운 시원을 열어놓고 수십성상 당건설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탁월한 수령은 없다.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주체의 당건설위업을 개척하시고 필승불패의 당을 건설하시여 우리 조국과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놓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조국청사에 영원불멸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내이신 걸출한 령도자이시다.

지금으로부터 50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필생의 과업으로 내세우신것이 바로 우리 당을 수령의 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이였다. 우리 당안에는 오직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이 있어야 하고 수령의 사상의지대로만 움직이는 혁명적기풍이 차넘쳐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드팀없는 신념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전당김일성주의화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당은 수령의 당으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게 되였으며 당의 령도적기능과 전투적위력이 끊임없이 높아지게 되였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악의 시련이 겹쌓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어버이수령님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고수하시고 우리 당을 선군혁명의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은 주체적당건설사에 길이 빛날 업적이다. 우리 당이 선군의 기치높이 조국과 혁명,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온 성스러운 력사의 갈피마다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수령의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강의한 의지, 불면불휴의 로고가 뜨겁게 깃들어있다. 수령의 사상체계와 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적당,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 강철같은 규률과 전투력을 지닌 불패의 당,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강화발전된 조선로동당의 긍지높은 모습이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또 한분의 천출위인을 모시여 수령의 당으로서의 위용을 더 높이 떨쳐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진보적인류가 한결같이 우러르는 현시대의 걸출한 정치가이시다.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예지와 비범한 정치실력, 숭고한 덕망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수령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이 더욱더 뚜렷이 부각되고 전투적위력이 비상히 강화되고있다.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와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를 비롯한 력사적인 회합들을 마련하시여 우리 당 강화발전의 새로운 장을 펼쳐가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중대한 전환적시기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반석같이 다지신것은 거대한 업적으로 빛나고있다. 우리 당이 지금처럼 전투적기백이 약동하는 전도양양한 당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해나가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빛을 뿌리고있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력사적진군길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이 얼마나 크나큰 행운인가를 심장깊이 절감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기에 우리 당은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빛날것이라는것을 확신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 지도적지침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는 위대한 향도의 당이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자주시대를 대표하고 21세기를 향도하는 혁명과 건설의 대백과전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과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시려는 확고부동한 의지의 힘있는 과시로 된다.

창건의 첫 기슭에서부터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온 우리 당에 있어서 김일성-김정일주의외에 다른 사상이란 절대로 있을수 없다. 오늘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작성의 출발적기초로, 근본지침으로 되고있다. 우리의 수백만 당원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을 삶과 투쟁의 교과서로 삼고 그 요구대로 살며 일해나가고있다. 전당적, 전사회적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에 대한 학습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는 현실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열렬한 신봉자, 견결한 옹호관철자로 삶을 빛내여나가려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철석같은 의지를 잘 보여주고있다.

지도사상은 당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조선로동당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수령의 당,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존엄떨칠것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당건설과 당활동을 조직진행해나가는 주체의 혁명적당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장구한 기간 우리 당을 이끄시며 혁명적당건설의 시대적본보기들을 다 마련해놓으시였다. 여기에는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는 문제로부터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문제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경험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은 우리 당의 일관한 혁명방식, 활동방식으로 되고있다. 당의 조직건설, 사상건설, 령도예술건설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놓으신 주체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에 토대하여 해나가고있는것이 우리 당이다. 전당에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세워주신 정연한 사업체계와 질서가 지배하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대원수님들의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철저히 구현해나가고있다. 전당이 사람과의 사업에 주력하자는 우리 당의 요구도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대중령도방법의 계승이며 우리 당이 추켜든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도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인민관의 구현이다.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은 우리 당건설과 당활동, 당사업의 만능의 보검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창조하신 혁명적당건설의 고귀한 력사와 전통을 100%계승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혁명적립장은 확고부동하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혁명적당이다.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끝까지 충실한 당만이 수령의 당으로서의 생명력을 발휘할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이것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관철에서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기본요구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열어주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으로 되고있으며 대원수님들의 념원을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기는것이 우리 당의 투쟁목표로 되고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대원수님들께서 바라시던 모든것을 훌륭한 결실로 꽃피우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고있다.

수령의 사상과 위업, 유훈과 념원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에 의하여 지금 이 땅우에서는 세기적변혁이 이룩되고있다. 우리 조국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구상하신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무적의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고 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돌진하고있다.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하여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기념비적건축물들이 도처에 일떠서고 철령아래에 사과바다가 펼쳐지는것과 같은 기적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다.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지금 더욱더 맹렬해지고있다. 고결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로 수령의 유훈과 념원을 정히 받들어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가 있기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이것은 추호도 변할수 없는 조선로동당건설의 총적과업이다.

우리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열백번 바뀌여도,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온다고 하여도 우리 당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밑에 전당의 사상적일색화를 확고히 실현해나가야 한다.

전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빛내이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의 승리를 앞당기는 길이 있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당원들에게 있어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고 그 승리를 위한 투쟁에 한몸바치는것보다 더 영예롭고 숭고한 사명은 없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과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며 당건설과 당활동을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진행해나가야 한다.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불길을 더욱 높여 일군들과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정수분자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현시기 우리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며 이것은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불패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이 빛을 뿌리고 이 땅우에 륭성번영의 새아침이 밝아온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하고 일편단심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라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며 원수님의 절대적권위와 안녕을 백방으로 옹호보장하여야 한다.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당의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은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참모습이고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최후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는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을 순간도 멈춤없이, 강도높이 밀고나가야 한다. 당의 통일단결을 좀먹는 사소한 요소도 절대로 묵과하지 말고 제때에 철저히 짓뭉개버려야 한다.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은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기본고리로 된다. 당세포만 강하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이 흔들리지 않으며 이 세상에 무서울것이 없고 못해낼 일이 없다. 당세포들은 모든 당원들이 차광수, 김혁동지들을 비롯한 우리 당의 1세대 당원들처럼 투철한 신념과 깨끗한 량심으로 당과 수령을 받들며 일심단결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당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는 혁명이 전진할수록, 정세가 긴장하고 방대한 과업이 나설수록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우고 혁명과 건설을 우리 식대로, 우리 힘으로 힘차게 전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자위적군사력을 천백배로 강화하며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조선속도창조의 불길,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우리 당의 구상과 결심을 자랑찬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에서는 대중의 앙양된 열의를 고조시키기 위한 사상전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여 온 나라가 대비약, 대혁신의 기상으로 부글부글 끓게 하여야 한다. 당면하여 올해 전투를 승리적으로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총돌격전에 천만군민을 불러일으키는데 사상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다음해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이하게 된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주체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의 위대성을 온 세상에 과시하고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자랑찬 승리와 강성번영으로 수놓아가는 우리 당의 높은 령도적권위와 전투적위력을 힘있게 떨치는 대정치축전이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권위는 절대적이며 당의 령도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고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은 억척불변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사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영원하리

↑당사업과 관련한 문건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9(1980)년 10월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1(1972)년 4월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8(1979)년 10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차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추대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9(1980)년 10월

도당선전비서협의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3(1974)년 2월

새로 편찬한 **김일성**동지혁명력사도록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4(1975)년 8월

함경북도 온성군당위원회사업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4(1975)년 3월

당창건기념탑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4(1995)년 10월

당창건 50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총련일군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4(1995)년 10월

조선로동당 제3차 대표자회 참가자들의 환호에 답례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9(2010)년 9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조 무관단,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동지의 가족, 일본의 단체들, 공화국영웅 안동수 유가족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 창건 69돐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무관단 단장인 장평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국방무관이 9일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륙군대장 현영철동지에게 전달하였다.

* *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 창건 69돐에 즈음하여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동지의 가족과 일조우호 시고꾸련락회, 일조우호 히로시마현민의 회, 일본 아이녀성회의 오노미찌지부, 일본과 북남조선과의 우호를 추진하는 회에서 9일 꽃바구니들을 보내여왔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 *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 창건 69돐에 즈음하여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인 정일심동포가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가 9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9일 주조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 세계식량계획대표부 성원들과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인 정일심동포가 꽃바구니들을 진정하였다.

그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평생을 바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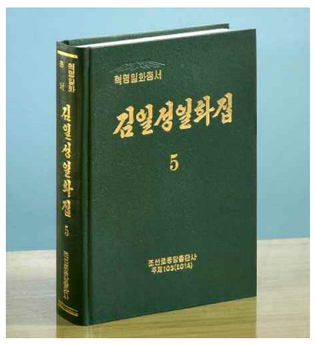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생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계신다》 등의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이에 앞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에 주조 웰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본사기자

혁명일화총서

《김일성일화집》 제5권 출판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혁명일화총서 《김일성일화집》 제5권을 출판하였다.

도서에는 주체29(1940)년 8월부터 주체34(1945)년 8월까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일화들이 4개의 장으로 서술되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자주의 기치밑에 우리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현대력사를 새롭게 개척하고 빛내이신 탁월하고 세련된 혁명의 령도자이시다.》

제17장 《소부대활동의 나날에》에는 《대원들에게 심어주신 신념의 기둥》, 《사득판에서의 망원전술》, 《맹산촌오지에서의 선언》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소부대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시며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나가시는 과정에 있은 일화들이 편집되여있다.

《혁명동지 한명을 적 1 000명과 바꿀수 없다》, 《천개의 가루봉지에 깃든 사랑》 등에는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혁명전사들을 보살펴주시며 그들을 조국해방성전에로 적극 불러일으키신 절세위인의 숭고한 동지애를 전하는 력사적사실들이 감명깊게 수록되여있다.

이 장에는 또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보여주는 일화들과 그 어떤 엄혹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한 혁명선렬들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들도 편집되여있다.

제18장 《자력독립의 기치높이》에는 《회의장에 울린 신념의 선언》, 《백두산으로 가자》, 《통쾌한 습격전》을 비롯하여 하바롭스크회의에서 조선혁명의 독자성을 확고히 견지하신 우리 수령님께서 원동과 백두산지구 등에서 정치군사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리신 내용을 담은 일화들이 수록되여있다.

《두 지휘관의 감격》, 《김책과의 첫 상봉》, 《북만에서 온 지휘관의 놀라움》 등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천출위인상에 매혹되여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이만을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혁명전사들의 확고한 신념을 반영한 이야기들이 생동하게 서술되여있다.

특히 이 장에는 주체혁명, 선군혁명위업계승완성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대경사》, 《쪽무이포단에 대한 추억》, 《소백수골의 경사》, 《후대들에게 물려줄 유산》 등의 일화들이 수록되여있다.

제19장 《최후결전을 위하여》에는 원동에서의 군정훈련의 나날 모든 대원들이 유능한 군사정치간부들로 자라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위인적풍모를 보여주는 일화 《명사수가 된 신입대원》, 《사령관의 락하시범훈련》, 《사격장에 터져오른 환호성》이 편집되여있다.

《타향에서 맞은 추석날》, 《조국을 알라》를 비롯한 일화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을 책임지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국의 력사와 지리, 문화전통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시며 대원들의 가슴마다에 열렬한 조국애를 심어주신 내용을 담고있다.

제20장 《항일대전의 승리》에는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업적을 담은 일화들인 《열어주신 대일작전의 돌파구》, 《〈조국해방 만세!〉》 등이 감동깊게 편집되여있다.

도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천출위인상과 혁명력사를 깊이 체득시키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태양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도록 고무추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본사기자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모든 영광 맞이하리라

우리의 당기 세대를 이어 힘차게 나붓긴다

뜻깊은 10월명절을 맞는 우리 조국이다.

따사로운 해빛아래 대지에서는 오곡백과 무르익고 바다에서도 사회주의향기 풍겨오고있다. 하지만 풍요한 가을이 주는 감미로움때문에 우리의 마음 이처럼 뜨거운것이 아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붉은 당기의 모습으로 자리잡은 10월 10일,

저 멀리 험한 령을 넘고넘으며 력사의 온갖 시련을 다 이겨내고 창조와 기적의 위대한 승리만을 안아온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에 대한 생각에 더욱 가슴뜨거워지는것이 인민의 마음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변함없이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셔야 합니다.》

감격도 새로운 17년전의 10월 8일을 잊을수 없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보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전당의 의사에 따라 30여성상의 오랜 기간 불면불휴의 혁명활동으로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로숙하고 세련된 혁명적당으로,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우리 인민을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지닌 자주적인민으로 키우시였으며 이 땅에 김일성민족의 륭성과 번영의 새시대를 펼치신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의 공인된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시였음을 엄숙히 선포한다.

온 나라는 말그대로 해솟는 바다처럼 설레이였다. 내 나라의 푸른 하늘에 터져오르는 격정의 환호, 환호!

우리 조국의 경사만이 아니였다.

세계가 대사변으로 맞이하였다.

세계의 국가, 정부 및 정당수반들과 저명한 인사들이 위대한 장군님께 축전을 보내여왔고 수많은 나라에서 경축행사들이 전례없는 규모로 성대히 진행되였으며 수백개 출판보도물들이 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모신 격동적인 소식으로 지면과 우주공간을 꽉 채웠다.

그것은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에 대한 진실한 격찬이였고 다함없는 칭송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력사의 선언이 되새겨진다.

이제는 우리가 저 붉은 기발을 높이 휘날려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혁명의 앞길에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수령님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합니다. …

엄숙한 계승의 맹세속에 당기발이 펄펄 휘날리는 곳마다에서 승리의 함성이 터져올랐다.

력사가 증명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집권당들이 무너지고 사회주의가 좌절되는 력사의 역풍이 불어쳤으며 우리 조국은 피눈물의 언덕을 넘어야 하였다. 게다가 자연재해까지 겹쳐들었다.

전대미문의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된 우리 조국을 두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사회주의조선의 《붕괴설》을 내돌리며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만난을 박차고 노도쳐가는 투쟁과 전진의 진두에는 언제나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고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우리 당이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 그이는 곧 조선로동당이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조선의 힘, 강대성의 상징이시였다.

조국이 시련의 언덕들을 넘고헤치던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뜻깊은 말씀이 우리 혁명의 90년대를 다 말하여준다.

나는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지만 당을 떠나서는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없다. 우리 당은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넘겨주신 위대한 당이다. …

사회의 령도적정치조직이며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추인 우리 당을 선군혁명의 향도자로!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당은 선군혁명의 기관차가 되여 천만군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수 있었다.

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를 앞장에 내세우고 전체 인민을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로선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것이 당사업의 기본임무로, 중심과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였다.

제국주의떼무리의 광란적인 전쟁도발책동으로부터 우리 조국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우리 조국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대변혁을 련이어 펼친것은 위대한 선군시대가 낳은 크나큰 자랑이다.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속에 자랑찬 창조물들이 련이어 솟구쳤으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만년토대가 마련되였다. 선군시대를 상징하는 기념비적걸작들이 수많이 창작, 창조되여 주체문학예술의 새로운 개화기가 펼쳐졌다.

참으로 우리 조국이 일심단결된 불패의 정치사상강국으로, 천하무적의 군력을 갖춘 세계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전변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온 나라 천만군민은 우리 당을 선군혁명의 강력한 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강성번영의 만년토대를 굳건히 다져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있다.

태양영생의 노래가 울려퍼진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태양절을 앞두고 발표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수령님의 후손들이며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가 어떤 신념과 의지, 도덕의리심을 가지고 자기의 령도자를 받들어모시고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떨쳐나서야 하는가를 뚜렷이 명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최후승리에로 노도쳐 나아가는 선군혁명위업수행의 길에서 그 얼마나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강산에 새겨졌던가.

언제인가 일군들은 일요일, 명절날도 따로 없이 때식도 잊으시고 사업에 전념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잠시라도 쉬실것을 간절히 말씀드린적이 있었다.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군님의 의도대로 선군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해 낮에 밤을 이어가며 일하는데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이제는 밤을 밝혀가며 일하는것이 습성화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에 나의 사상정신적힘을 다 바쳐나가려고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열렬한 그 마음을 안으시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위대한 계승의 세계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병사들을 찾아 자그마한 목선으로 길길이 풍랑치는 바다길도 가시였고 적들의 총구가 지척에 도사리고있는 까칠봉초소에도 오르신 우리의 원수님,

인민의 마음속에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울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이께서 이어가신 낮과 밤들은 백이런가 천이런가.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 당은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령도적정치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다.

령도자와 천만전사들이 팔을 끼고 어깨겯고 뜻과 정을 나누며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가장 진실하고 혁명적인 통일단결, 전통적인 일심단결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우리 당의 혁명철학으로 더욱 공고화되고있다.

주체의 당건설과 당사업에 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리념, 정력적인 령도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혁명적의지, 애국의 열정을 주고 포부와 신심을 주고있으며 강성조선의 래일을 앞당겨오고있다.

위대한 계승의 력사는 영광과 승리의 력사이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약동의 숨결과 음향이 온 강토에 울려퍼지고있다.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창전거리불야경, 릉라도의 천지개벽, 로라스케트장에 울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미림승마구락부의 말발굽소리, 인민의 기쁨 넘쳐나는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의 스키바람, 은하과학자거리, 장재도와 무도의 새 모습, 철령아래 사과바다, 그런가하면 조선속도의 세찬 열풍속에 준공을 앞둔 위성과학자거리,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그야말로 번영의 시대, 승리의 시대이다.

긍지높은 력사우에 또다시 밝아오는 영광의 천만리를 내다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터치는 심장의 웨침이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백년이고 천년이고 대대손손 높이 받들어모시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전진해나가자.

그이따라 조선속도로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높고 푸르른 10월의 하늘가에 휘날리는 우리의 조선로동당기여!

세대를 이어 더욱더 힘차게 나붓기라.

본사기자 김철혁

그 품에 뛰는 피방울

계승의 의지가 빛발친 력사의 순간

우리 군대와 인민모두가 즐겨부르는 노래들가운데는 주체73(1984)년에 창작된 조선예술영화 《우리를 기다리지 말라》의 주제가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도 있다.

이 나라의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석처럼 소중히 간직된 숭고한 사상감정을 소박한 시어와 서정적이고 은근한 선률에 담아 형상한 노래,

그지없이 소박하지만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심오한 철학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불러일으키고있는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은 어떤 사연을 전하고있는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누가 나에게 가르쳤던가〉와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같은 노래들을 인민이 다 좋아하는데 그런 노래가 바로 국보적인 노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8월 어느날에 있은 일이다.

한 방송일군을 만나시여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와 함께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을 감상하시였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에게 가요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의 가사가 좋다고, 2절에 《그대가 크나큰 심장이라면 이 몸은 그 품에 뛰는 피방울》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내용이 좋다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당과 조국을 심장에 비유하고 전사와 충신을 피방울에 비유한것은 아주 잘한 표현이라고 다시금 이야기하시였다.

당과 인민의 혼연일체와 그 불패성을 하나의 가사를 통하여 도출해내시는 그이의 말씀에 일군은 커다란 흥분을 금치 못하였다.

새겨볼수록 그 의미가 커다란 진폭으로 안겨오는 말씀이였다.

장군님은 곧 우리 당, 우리 조국이시고 우리의 심장이시며 우리모두는 그 위대한 품에 뛰는 피방울!

그 품을 떠나 자기 존재를 생각조차 할수 없고 그이의 믿음과 사랑을 떠나 삶의 보람에 대하여 말할수 없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이 아닌가.

그의 이런 생각을 헤아려보신듯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사의 인상적인 구절에 대하여 계속 되뇌이시였다.

심장과 피방울… 당과 전사의 관계를 잘 표현하였다. …

그날 일군은 그이께 어떤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어 마지막피 한방울까지 다 바쳐 충직하겠다는 자신의 결의를 말씀드리였다.

그의 결의를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한번 다진 충정의 맹세를 변함없이 지켜나가는것이 혁명가의 신념이다. 혁명가에게 있어서 변절은 가장 너절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이다. 동무는 당을 받들어 끝까지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

그 어떤 뢰성벽력에도 끄떡하지 않을 신념의 기둥을 억척으로 새겨주시는 우리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은 심장으로 웨쳤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붉은 피를 끓이며 위대한 그 심장에 높뛰는 고동을 더해주리라고.

오늘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은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위대한 당을 따라 강성할 래일을 향하여 힘찬 진군길을 다그쳐나가고있는 이 나라 천만아들딸들의 신념의 맹세로 내 나라의 푸른 하늘가에 울려퍼지고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조선로동당, 어머니 우리 당이 지닌 높은 존엄과 백승의 위력, 양양한 전도는 10월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가 있어 우리 혁명, 우리의 사회주의는 끄떡없으며 우리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어버이장군님따라 고난과 시련을 헤치며 승리의 력사를 수놓아온 나날을 인생의 영광으로 긍지높이 추억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잊지 못할 하나의 이야기가 소중히 새겨져있다.

주체100(2011)년 10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인민군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계승성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하자면 모든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김정은동지를 잘 받들고 그를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변함없이 걸어나가야 한다. …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는 순간 인민군지휘성원들은 숭엄한 격정에 휩싸였다.

믿음어린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은 언제나 투철한 혁명적신념과 순결한 량심을 지녀야 한다는데 대하여 이야기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나는 오래동안 선군혁명을 령도하여오면서 김정은동지처럼 자기 령도자에게 충실하고 비범한 예지와 령도력, 한없이 겸허하고 인자하면서도 영웅남아다운 담력과 배짱을 지닌 그런 출중한 인간은 처음 보았다. 김정은동지는 현대군사가, 현대정치가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최상의 높이에서 완벽하게 체현하고있다. 김정은동지는 문무를 겸비한 희세의 선군령장이다. …

순간 장내에는 감격의 파도가 세차게 일어번졌다.

우러를수록 김정일동지가 있어 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고 하시면서 태양처럼 환히 웃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가슴가득 안겨와 인민군지휘성원들의 눈시울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우리 조국의 밝은 미래가 금시 눈앞에 다가드는듯싶어 마음든든해졌다.

커다란 환희에 넘쳐있는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정은동지는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며 자신의 가장 가까운 혁명전우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백두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시는 그이의 말씀은 인민군지휘성원들의 가슴마다를 울려주었다.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할 굳은 맹세가 인민군지휘성원들의 얼굴마다에 력력히 어려있었다.

정녕 이날은 위대한 수령님따라 시작하였고 어버이장군님따라 승리떨쳐온 주체혁명위업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빛나게 계승완성할 이 나라 천만아들딸들의 억척같은 맹세가 불타오른 잊지 못할 날이였다.

본사기자 리금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은 밝고 창창하다.
— 주체사상탑에서 —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인민이 부르는 로동당만세소리 내 나라 방방곡곡에 메아리친다

어머니의 목소리

1. 사랑에 젖어있는 어머니의 목소리
언제나 들을수록 아 정다워
그곁에 있어도 멀리에 있다 해도
우리 당의 그 목소리 아 정다워

2. 믿음에 넘쳐있는 어머니의 목소리
가슴에 새길수록 아 뜨거워
새벽길 걸어도 밤길을 걸어도
우리 당의 그 목소리 아 뜨거워

3. 어머니 그 목소린 한가정에 울려도
우리 당 그 목소린 온 나라에 울리네
꿈에도 못 잊어 영원히 못 잊어
우리 당의 그 목소리 아 따르리

우리 당 그 목소린 온 나라에 울리네

가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온 나라 전체 당일군들이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당앞에 다진 불타는 충정의 맹세로 간직하고 사는 한편의 명곡이 있다.

가요 《어머니의 목소리》,

노래가 나온지는 20여년세월이 흘렀지만 그 울림의 폭과 깊이, 이 명곡에 대한 인민의 사랑의 열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고 열렬해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이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며 자기의 령도적 지위를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은것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서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여왔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로 노래한 첫 기념비적송가 《어머니당이여》가 위대한 당의 모습을 생동한 생활적형상으로 인민의 마음속에 안겨주었다면 가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우리 인민들에게 위대한 당의 목소리, 정답고 자애깊은 체취를 심장으로 뜨겁게 느낄수 있게 하여주었다.

가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주체81(1992)년에 창작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날이 갈수록 인민의 생활속에, 심장속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으며 어머니당으로서의 그 성스러운 지위와 역할이 끊임없이 높아졌다. 특히 1990년대에 이르러 조선로동당의 인민적성격은 력사의 풍파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두드러졌으며 당에 대한 인민의 사랑과 지지는 더한층 강렬하고 열렬해졌다.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악랄해지고 동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기치와 함께 당기발도 내리워져 수많은 사람들이 동요와 비관에 빠져있을 때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혈연적련계는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높이 떨쳐졌다.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는 우리 당의 목소리는 시련의 폭풍이 휘몰아칠수록 더욱더 뜨겁고 정깊은 어머니의 목소리로 천만심장에 와닿았다. 인민의 생활속에 신념의 기둥으로 억세게 뿌리내린 당의 모습은 인민으로 하여금 《어머니의 목소리》와 같은 또 한편의 송가를 심장의 노래로 지어 터쳐울리게 하였다.

정세는 복잡하고 첨예하였지만 이 땅우에서 울려퍼지는 인민의 노래는 끝없이 평온하고 행복에 넘쳐있었다. 이 노래는 조선로동당이 인민의 생활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박고있으며 우리 당의 목소리가 어떻게 되여 어머니의 목소리로 뜨겁게 울리는가를 웅변으로 보여준 전체 조선인민의 심장의 고백이였다.

행복한 나날에나 시련의 나날에나 변함없는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으로 인민을 따뜻이 품어안아주신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일찌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우리 당을 인민대중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업적을 우리 인민은 이 노래와 더불어 뜨겁게 더듬어보고있다.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의 한평생이 눈앞에 어려오고 공장과 농촌을 찾으시여 인민들과 나누시던 사랑의 이야기들이 가슴에 사무쳐와 이 나라 천만군민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는 사연깊은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가 새 세기에 들어와 전체 당일군들의 충정의 맹세로, 인민들의 심장의 고백으로 더욱 소리높이 울려퍼질수 있은것은 이 노래를 례사롭게 불러온 당일군들도 창작가들도 미처 다 헤아릴수 없었던 심오한 진리가 위대한 당의 목소리로 또다시 뚜렷이 천명되였기때문이다.

가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와 더불어 두번다시 태여났다고 말할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회에 참가하였던 당세포비서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친필로 보내주신 노래전문은 그대로 온 나라 당일군들이 심장에 안고 살아야 할 사업과 생활의 고귀한 지침이였고 조선로동당원들의 삶의 주제가였다.

오늘도 우리 당일군들은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있다.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의 가사에 어머니 그 목소린 한가정에 울려도 우리 당 그 목소린 온 나라에 울리네라는 인상깊은 구절이 있는데 어머니당의 사랑과 믿음의 목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퍼지게 하여야 할 사람들은 바로 세포비서들이라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절절한 당부를 새겨안으며 천만군민은 심장으로 이 노래를 다시금 불러보았다.

이 노래는 지금 현실에서 당사업의 교본과도 같은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당일군들은 하루사업을 시작하고 총화하면서 가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자신의 하루를 비추어보고있다. 모든 당일군들이 이 노래의 선창자가 되여 어머니당일군의 본분을 심장깊이 새기고있다.

인민들은 이 노래를 들으며 세월이 흐르고 날이 갈수록 자기들의 생활속에 깊이깊이 자리잡고있는 어머니당의 모습을 눈시울 뜨겁게 그려보고있으며 이 땅우에 인민의 모든 꿈을 현실로 꽃피워주기 위하여 언제나 꺼질줄 모르는 당중앙의 불빛을 심장에 안아보고있다.

이 명곡에서 울려나오는 어머니의 목소리, 우리 당의 목소리를 자나깨나 못 잊을 우리 장군님의 정다운 음성으로, 듣고들어도 또 듣고싶은 우리 원수님의 친근한 음성으로 받아안고있는것이 바로 《어머니의 목소리》 노래를 부르는 이 나라 인민의 심정이다.

이렇듯 노래는 세상에 다시 없을 조선로동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혼연일체를 생활적으로, 음악적으로 훌륭히 그려내고 피보다 진한 우리의 혼연일체를 더욱 굳건하고 열렬하게 다져주는데서 참으로 거대한 역할을 하였다.

《어머니의 목소리》의 선창자는 다름아닌 당의 사랑과 믿음을 인민들에게 그대로 가닿게 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을 지닌 우리 당일군들이라는것을 깊이 새겨주는 여기에 또한 이 노래가 가지는 커다란 사상정서적감화력과 생활력이 있다.

우리 일군들이 인민의 운명을 따뜻이 보살펴주는 참다운 어머니가 되여야 한다는 사상을 생활적인 시어와 선률속에 예술적으로 잘 반영하고 우리 당의 인민적성격과 본성적요구를 훌륭히 구현한것으로 하여 노래는 세기를 이어 오늘도 천만군민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사랑과 믿음으로 인민의 운명을 따뜻이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의 숭고한 의지를 예술적으로 훌륭히 반영한 《어머니의 목소리》와 같은 명곡들은 당과 인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고 온 나라를 일심단결의 화원으로 아름답게 가꾸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일관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더불어 위대한 어머니당에 대한 찬가는 대를 이어 끝없이 태여날것이다.

리 수 정

누리에 빛나는 우리 당의 모습

10월!

우리 당창건기념일로 뜻깊은 10월이다.

어머니의 생일을 맞으며 자식들이 어머니에 대해 생각하듯, 품에 안아 젖먹여주고 걸음마 떼여주고 추울세라 더울세라 배고플세라 보살펴 키워준 어머니의 사랑과 수고를 돌이켜보며 한생 못 잊을 정다운 그 모습을 가슴에 되새기듯 이 10월에 사람들 누구나가 당에 대해 생각한다.

생명을 주고 사랑을 준 어머니모습에 당의 모습을 비기면서 이렇게 우리 당을 부른다.

어머니!

당의 모습은 그처럼 우리모두의 마음속에 어머니의 모습으로 자리잡고있다. 그래서 10월의 하늘가에 날리는 당기의 성스러운 기폭은 천만자식을 보살피고 키우느라 세월의 눈비에 젖은 어머니의 옷자락으로도 안겨오는것이리라.

어머니 우리 당!

그 이름 부르면 우리의 가슴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이 숭엄하게 안겨온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뜨겁게 떠오른다.

조선로동당이자 곧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이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라는것을 생활과 력사로 체험한 우리 인민이다. 우리 당이 절세위인들의 령도와 덕망으로 하여 위대하고 존엄높으며 우리 당의 품은 곧 절세위인들의 품이라는것이 인민의 신조이다.

그렇다. 우리 당의 모습은 자신의 한평생을 다 바치시여 이 땅의 천만삶을 보살펴주고 지켜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장군님의 모습이며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모습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모습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뜻깊은 10월에 당에 대해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우리 당을 인민의 영원한 삶의 품으로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하여 생각한다.

우리 생활의 매 순간에 미치는 당의 손길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손길, 은혜로운 어버이손길이다.

하나의 새 집, 하나의 새 공장에서도 인민의 행복을 가꾸시는 우리 원수님의 그 사랑, 그 손길을 느낄수 있다. 백화점매대에서 사람들이 사드는 화장품 하나에서도, 합숙문을 나서는 로동자들의 밝은 얼굴에서도, 당기앞에서 엄숙히 입당선서를 하는 사람들의 눈빛에서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인민의 기쁨과 행복, 희망과 영광, 미래의 전부이시라는 생활의 목소리를 새길수 있다.

우리 원수님께서 양말공장을 찾으시여 인민들이 신을 양말을 세심히 보아주시는 모습을 뵈오면서도 사람들은 인민을 더없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시며 인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그이의 숭고한 풍모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다.

우리 당은 가슴속에 아픈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더 깊이 품어주고 내세우고있다고, 리철호동무가 꿈에도 소원하던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닌데 대하여 그리도 기뻐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 편지에서 읽어보며 나도 정말 기쁘다고 하시면서 영광군의 한 녀성에게 그이께서 보내주신 친필을 자자구구 새기면서 인민들은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서만 자신의 운명과 전도가 꽃피여날수 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였다.

우리 당이라는 말을 원아들의 밥상에 놓인 그릇에도 삼가 얹어본다. 위대하고 신성한 그 부름을 애육원, 육아원의 그릇에 얹기가 서슴어지지만 그 그릇 하나에도 우리 당의 모습이 력력히 비껴있으니 어찌하랴.

지나온 날들에 누가 원아들의 밥그릇을 제 집 식장에 놓인 자식들의 밥그릇과 대비해본적 있었는가. 육아원과 애육원의 식기들이 금속제품이여서 아이들이 떨구거나 가지고 장난을 해도 깨지지 않아 좋을것이라고 여기였을뿐 어느 누가 원아들의 밥그릇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생각해본적 있었는가.

오로지 우리 원수님께서만 그렇게 생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원아들의 밥그릇도 스쳐보지 않으시였고 나라일에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질좋고 모양곱고 산뜻한 새 그릇들을 마련하여 원아들에게 보내주시려고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부모없는 아이들도 우리 혁명의 계승자, 미래의 역군들이라고 하시면서 전국의 모든 육아원, 애육원들을 혁명가유자녀들을 키우는 혁명학원수준으로 꾸리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서 그리고 푸짐한 식탁과 따뜻한 보금자리,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는것은 아이들을 잘 키우는데서 선결조건이라고 하시면서 당에서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평양시의 육아원, 애육원을 새로 마련해주겠다고 하신 그날의 말씀에서 사람들은 우리모두가 안겨사는 품이 얼마나 은혜로운 사랑의 품인가를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지난 2월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수도의 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신 소식에 접하고 모두가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아들을 품에 그러안으시는 모습을 뵈옵고 온 나라 사람들이 울었다. 하지만 원아들을 꼭 안으시고 볼을 쓰다듬어주실 때의 그이의 심중을 누구인들 다 헤아리였겠는가. 자나깨나 그립던 육친의 정이 어린것들의 가슴에 스며들어 원아들이 《아버지!》 하고 부르며 그이 품에 파고들 때 세상은 무엇을 목격하였던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부모없는 아이들은 누구보다 정을 그리워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부모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밝고 바르게 잘 키우자고 하신 말씀에서 인민들은 정녕 일생에 사무치도록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바로 그이의 품에서 이 나라의 모든 기쁨과 행복이 시작된다는것을!

그날 육아원의 주방에 들리시여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먹이는가를 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부터 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에게 물고기를 매일 300g씩 먹이시겠다고 하시였을뿐아니라 육아원, 애육원의 아이들에게 영양가높은 곶감도 정상적으로 먹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곶감이 많이 나는 곳에 주둔한 인민군부대들에 곶감을 마련하여 보장할데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겠다고 하시였다.

과연 누가 원아들에게 정상적으로 곶감을 먹일 생각을 해보았고 곶감이 아이들의 영양에 얼마나 좋은가를 알고있었던가.

사랑의 물고기, 사랑의 곶감에 대한 소식에 접한 온 나라 인민은 세상에 우리 원수님 같으신분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고 격정을 터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인민들은 바로 우리 당의 모습을 뜨겁게 새겨안았으며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좌우명으로 지니신 절세위인을 령도자로 높이 모시고있는것으로 하여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본성이 변함없이 고수되고 영원히 빛나고있다는것을 심장에 아로새기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정은**동지는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을 특별히 귀여워하고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그의 숭고한 후대관의 발현이며 그의 천품이기도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이민위천은 위대한 수령님의 좌우명이고 자신의 좌우명인 동시에 **김정은**동지의 좌우명이라고, **김정은**동지는 인민을 한없이 존중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천품으로 지니고계시는 숭고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에 대하여 생각하니 우리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과 함께 하나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해방후 어느날에 있은 일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 사람이 여담삼아 자기가 어느 지방에 나가 보았는데 웬 녀성이 아이를 업은채로 이악하게 모내기를 하더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시였다. 그 지방은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으로부터 수십리나 떨어져있었다. 그러나 수령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미루시고 즉시 그곳으로 떠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현지에 도착하시자 그곳 일군들에게 준절하게 말씀하시였다.

당신들이 진정 인민의 부모이고 혈육들인가. 어째서 녀성들이 아이를 업고 모내기하는것을 내버려두었는가. …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대책을 세우시고 새벽녘이 되여서야 돌아오시였다. 한 녀성이 아이를 업고 모내기를 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던 당사자가 수령님의 로고를 걱정하여 전화로 해도 되시련만 부디 그 먼곳에까지 갔다오셔야 되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우리야 인민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야 되겠소, 항일무장투쟁시기 만주의 눈판에 열번 쓰러졌다가도 불쌍한 우리 인민이 생각나서 죽을래야 죽을수 없어 다시 일어나군 하였는데 그렇게 찾은 인민을 어떻게 소홀히 할수 있겠소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그처럼 인민을 사랑하시고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수령님의 모습을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모습에서 뵈옵고있다. 그 거룩한 존함을 가슴에 새긴 첫 순간부터 절감하였던것처럼 그이께서는 한평생 인민을 사랑하시였고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꼭같은분이시며 그이께서 이끄시기에 우리 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인민의 어머니로 될것이라는것을 신념으로 굳히였다.

조국보위초소에 선 아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은 감격적인 소식을 받아안은 한 로동자의 가정에 가보아도 그에 대해 느낄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세워주시고 녀성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여 불치의 병에 걸렸던 우리 어머니가 소생할수 있었다고 원수님께 삼가 감사의 편지를 올린 한 녀병사의 가정에 들려보아도 그 신념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다. 우리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속에서 재생의 길을 걸으며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는 사람들의 생활에도 그런 심장의 말이 뜨겁게 울리고있다.

어머니라는 정답고 친근한 말로밖에는 달리 부를수 없는 우리 당 조선로동당!

백전백승의 우리 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하신 뜻깊은 가르치심은 당에 대한 인민의 사랑과 신뢰를 백배해주고있다.

누리에 빛나는 위대한 우리 당의 모습,

그 모습은 천만군민을 한품에 안고 운명도 미래도 보살펴주며 승리와 영광, 행복에로 이끄시는 인민의 어버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상으로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본사기자 박 철

자애깊은 어머니손길로

지난해 1월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준다.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을 탓하지 않고 더 마음을 쓰며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고 아픈 상처를 감싸주며 또다시 일으켜 내세워주는 품, 이것이 어머니 우리 당의 품입니다. …

어머니 우리 당!

소중한 그 부름을 되새길 때면 우리 당을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진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심금을 울려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은 조선로동당을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강화발전시키고 우리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걸출한 령도자이시며 희세의 정치원로이십니다.》

주체63(1974)년 9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일군에 대하여 료해하게 되시였다.

그 일군으로 말하면 농촌에서 태여나 갖은 고생을 다하다가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서 조선로동당원으로, 일군으로 성장한 사람이였다.

하기에 그는 농사군의 자식인 자기를 키워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을 잊을수 없다고 하면서 수령님의 교시관철에 한몸을 서슴없이 내댈줄 아는 무한히 성실하고 고지식한 일군이였다.

그런데 그의 친척들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게 되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곧 해당 일군들을 부르시여 자신께서 료해하신 사실자료들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는 가정주위환경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얼마 안되는 사람들만 가지고 혁명을 할수는 없다, 그 동무는 우리 당을 받들어 충실히 일하여왔다, 우리는 그의 가정주위환경에서 제기된 문제를 절대시할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을 믿고 계속 일하게 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정녕 이것은 한명의 전사라도 뒤떨어질세라 품에 안아 내세워주는 위대한 어머니의 손길이였고 어머니라는 고귀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우리 당만이 베풀수 있는 사랑이였다.

사랑과 정으로 천만전사들의 가슴마다에 열을 주고 빛을 주는 조선로동당!

그 열과 빛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손길을 따라 우리모두의 마음속에 더욱더 뜨겁게 비쳐들고있다.

설사 엄중한 과오나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99%의 나쁜 점이 있고 단 1%의 좋은 점, 량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 량심을 귀중히 여겨야 하며 대담하게 믿고 포섭하여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어야 한다.

골병이 든 사람,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일수록 더 뜨겁게 대해주어야 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맺혀있는 문제를 풀어주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런 가슴뜨거운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인민은 태양보다 더 뜨겁고 바다보다 더 넓은 위대한 포옹력을 보았다.

나라앞에 죄를 짓고 집단과 동지들은 물론 자기 혈육에게서마저 배척을 당하고 몸부림치던 사람들, 인생의 우여곡절에 부대껴야 했던 그들을 한품에 안아 일으켜주고 삶의 희열과 보람을 안겨주신분은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정녕 우리 당은 천만자식을 품에 안아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위대한 품, 떠나선 한순간도 살수 없는 어머니의 품이 아니던가.

하기에 인민은 오늘도 심장으로 웨친다.

어머니, 어머니없인 못살아!

강 원 남

류경원이 전하는 사연

절세의 위인의 애국헌신의 발걸음따라 이 땅에 눈부신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이 일고있다.

인민극장,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은하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그 어디에서나 우리는 인민의 행복넘친 웃음소리를 들을수 있다.

건설의 최전성기를 노래하며 솟아오른 기념비적창조물의 하나인 류경원, 바로 이곳에도 절세위인의 인민사랑의 이야기는 뜨겁게 어려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 의거하여 우리 식, 위대한 장군님식으로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 천하제일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울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복의 무더위속에서 류경원건설장을 찾으신 주체101(2012)년 7월 어느날이였다.

완공전야의 류경원은 자기의 특성을 완연하게 드러내고있었다.

현관홀에서 만족한 시선으로 내부를 둘러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류경원건설장을 찾아와 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듣던 때가 엊그제같은데 그동안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중앙홀을 휴식홀로 꾸리려고 한다는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류경원은 극장이 아니므로 중앙홀에 주단을 깔기는 곤난하다고, 자신의 생각에는 이 공간에 기단을 형성하고 돌로 조각같은것을 만들어놓은 다음 매대를 꾸려놓고 손님들에게 청량음료같은것을 봉사해주면 좋을것이라고, 이 홀은 휴식홀인것만큼 여기에 반드시 의자를 놓아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구체적인 세부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던 우리 원수님,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창조물을 훌륭히 일떠세워주시려 깊이 마음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한증칸에도 몸소 들어가보시였다.

무더위를 무릅쓰시고 온도가 90℃나 되는 건식한증칸에 들어가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한증칸을 둘러막은 유리벽체도 만져보시며 열손실을 막을수 있는 방도를 세심히 일러주기도 하시고 물소독과 려과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기도 하시였다.

그뿐이 아니다.

2층에 있는 소금한증칸과 소나무한증칸, 종유석한증칸을 차례로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한증을 편안하게 앉아서 할수 있게 의자를 놓아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도록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였다.

그 무엇을 하나 보시여도 인민들의 편의와 건강을 위해 누구보다 마음쓰시며 형식보다 내용을 첫째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사랑에 일군들의 가슴은 뭉클 젖어들었다.

더우기 그이께서 미안실과 랭실, 그 누구나 무심히 스쳐지나치던 리발실의 소독수와 가족목욕탕 접수칸벽에 게시된 목욕탕리용질서알림판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부족점들을 일깨워주시며 극복방도를 가르쳐주실 때 일군들이 받은 충격은 참으로 컸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은 우리 인민모두의 꿈을 아름답게 꽃피워주는 따뜻한 해빛이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류경원건설장을 떠나시기에 앞서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이렇게 당부하시였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완공되는 날까지 일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선물인 류경원을 손색없이 꾸려 류경원이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인민의 참된 봉사기지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

인민들이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서의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 뜨거운 사랑과 정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낮이나 밤이나 인민의 행복을 위해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인민의 모든 꿈 이루어질 사회주의문명국의 래일은 반드시 앞당겨질것이다.

본사기자

당의 품은 우리 사는 집
—대동강구역 청류3동에서 사는 김일엽동무의 가정에서—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위대한 향도의 당을 우러러 터치는 겨레의 경탄과 칭송의 목소리

절세의 위인을 모시여 영원한 승리의 력사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쳐진 위인의 한생은 겨레의 마음속에 영원히 빛나는 법이다. 조선로동당의 필승불패의 위력과 더불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오늘도 겨레의 심장속에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선군태양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17돐과 조선로동당창건 69돐을 맞이한 남녘겨레의 가슴속에는 조선로동당을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의 강위력한 전위대로 꾸려주신 절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세차게 끓어넘치고있다.

남녘겨레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10월 8일은 그이의 탄생일인 2월 16일과 더불어 민족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영광의 날이라고 하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생애와 위인적풍모, 불멸의 업적을 격정속에 돌이켜보고있다. 그들은 조선로동당을 인민대중의 신뢰를 받는 어머니당으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은 김정일장군님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과 리론의 빛나는 구현이고 알찬 열매이다.》, 《자주위업의 수호자이며 진보적인류의 보루인 조선로동당과 같은 위력한 당을 가지고있는것은 민족공동의 영광이다.》라고 격찬하고있다. 제주도의 한 통일운동단체 성원은 《조선로동당의 높이는 김정일령도자님의 정치공적의 높이이다.》라고 하면서 조선로동당을 전일적인 령도체계와 독특한 정치방식을 확립한 위력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장군님은 위대한 정치원로, 민족의 령수이시다라고 가슴속 진정을 터놓았다. 광주에 사는 한 재야인사는 《천리혜안의 예지로 현정세의 요구와 시대가 나아갈 길을 환히 꿰뚫어보시고 조선로동당을 위력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장군님의 업적은 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라고 열렬히 토로하였다.

안동시에서 활동하는 해바라기회 회원들은 시내의 어느 한 곳에서 《조선로동당과 김정일령도자》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가지였다. 모임에서는 《조선로동당의 모습 오늘에 본다》, 《세계에서 제일 전도유망한 당》 등의 제목으로 토론들이 있었는데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조선로동당이 자기의 주체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면서 사회의 향도적력량으로 빛을 뿌리고있는데 대하여 격조높이 찬양하였다. 한 회원은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이북의 사회주의를 압살하려 하고있지만 북이 동요없이 자기의 궤도를 따라 전진하고있는것은 조선로동당과 같은 세련되고 조직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일심단결된 불패의 당이 있기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시련이 가로막든 조선로동당은 필승불패할것》이라고 자기의 견해를 터놓았다. 서울의 한 지식인은 《조선로동당은 백승의 기상을 높이 떨치는 존엄높은 당》이라고 하면서 《이북의 사회주의가 위력한것은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조선로동당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혁명의 령도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해주시였기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남녘겨레가 한결같이 칭송하듯이 조선로동당이 지닌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는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존함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그처럼 간고했던 력사의 시련속에서도 우리 당이 단한번의 로선상착오나 탈선도 없이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꿋꿋이 수호하며 승리의 력사만을 아로새길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어 우리 당은 선군위업, 민족자주위업의 승리의 기치로 존엄떨치였으며 그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의 대문을 열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 6.15통일시대도 펼쳐진것 아닌가.

조국과 민족앞에 이렇듯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인이시기에 우리 장군님에 대한 남녘겨레의 경모의 정이 그토록 절절하고 뜨거운것이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김정일동지의 력사는 변함없이 흐르고 무궁토록 빛날것이라고 확신하고있다.

남녘땅에 굽이치는 위인칭송의 정을 담아 언론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위업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민족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는 확신을 표명하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은 우리 공화국이 당규약개정과 헌법수정을 통해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법화하고 당의 지도사상과 최고강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로 정식화하였으며 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명시하였다고 전하였다.

한 언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발표하신 력사적인 호소문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의 전문을 게재하고 인민들이 먼 후날에도 덕을 보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많이 일떠세우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강조하였다.

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정치방식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계승정치이다. 한 신문사가 발행한 2004년판 〈현대시사용어사전〉은 김정일국방위원장 특유의 정치방식으로 선군정치, 과학중시정치,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꼽았는데 이것 역시 김정은제1위원장께서 그대로 이어가고계신다. 현지지도중심의 활동방식도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방식과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그분의 정치철학이나 로선, 주요활동방식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모든것을 계승하고있으며 따라서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일정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수 있다.》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인터네트홈페지에는 《조선의 강대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리였다. 글은 《〈유일초대국〉도 감히 어쩌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는 조선의 강대함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내놓았다.

《자기 령도자를 어버이로 따르는 불같은 충정의 마음들, 오직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조국밖에 모르는 소박하고 진실한 마음들이 하나로 뭉친것이 조선의 진짜힘이요, 진짜모습이다. 바로 그것이 조선의 강대함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께서 계시여 이북의 미래는 창창하며 사회주의강성국가도, 조국통일의 새 아침도 반드시 밝아올것이다.》

그렇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조선로동당의 미래는 창창하며 어버이장군님께서 그토록 념원하신 통일의 새 아침이 밝아올것이라는 남녘겨레의 신념은 세월과 더불어 더욱 굳세여질것이다.

본사기자 김향미

매혹이 펼치는 흠모의 세계

인민의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는 사회

우리 당이 펼치는 숭고한 인민사랑의 정치아래 사회주의무릉도원, 인민의 락원으로 더 훌륭하게 전변되는 공화국의 모습은 남조선인민들의 경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한겨레》, 《통일뉴스》를 비롯한 언론들은 북에서는 릉라인민유원지, 류경원, 문수물놀이장, 인민야외빙상장, 미림승마구락부와 같은 대중적인 봉사기지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고있다고 앞을 다투어 소개하였다. 그러면서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이것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께서 자주 강조하시는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지론이다,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결심이다라고 강조하였다. 한 언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직접 마식령스키장건설을 발기하시고 그를 현명하게 령도해주시였다고 하면서 그이께서는 인민들에게 보내신 호소문에서 마식령스키장건설은 보다 훌륭한 문화생활조건을 인민들에게 마련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펼친 거창한 애국사업이라고 밝히시였다고 전하였다.

아이들이 왕으로 된 신비의 황홀경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들은 공화국 방방곡곡에서 복받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고 하면서 우리 당이 펼치는 위대한 후대사랑에 대하여 뜨겁게 격찬하고있다. 신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모든 원아들이 부모없는 설음을 모르고 부러움없이 혁명의 계승자, 혁명의 골간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하시면서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수산사업소를 인민군대에 조직할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신 사실을 비롯하여 이 땅에 펼쳐지는 사랑의 화폭에 대하여 앞을 다투어 보도하였다.

한 인터네트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개건보수공사를 아이들을 한평생 사랑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을 풀어드리는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멋쟁이건축물,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워주시였으며 몸소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온 하루를 아이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축복해주시였다고 칭송하였다. 그러면서 《북은 어린이들이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는 신비의 황홀경이다. 상상만으로도 그 신비경에 찬탄이 터져나오거늘 이북의 어린이들이 어찌 세상에 부럼없다고 세계를 향해 소리치지 않겠는가.》라고 찬탄을 금치 못하였다.

공화국의 미래는 창창하다

뜻깊은 광명성절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국을 방문하였던 한 해외동포언론인은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는 공화국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면서 우리 당이 펼치는 정치가 과연 어떤것인가를 절감하게 되였다. 하기에 그는 인터네트홈페지에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귀하신 영상사진문헌을 정중히 모시고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정치와 그 생활력에 대해 소개한 《북녘동포들 가슴깊이 젖어든 령도자사랑》이라는 제목의 조국방문기를 실었다. 글에서 필자는 우리 당의 인덕정치는 감동 그자체이며 수많은 일화를 낳고있다고 하면서 특히 감동적인것은 북녘동포들의 가슴속깊이 간직되여있는 최고령도자에 대한 열렬한 존경심이였다고 썼다. 그는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불타는 소원》을 비롯하여 북녘의 하늘가에 울려퍼지고있는 흠모의 노래들은 북의 군대와 인민들의 가슴속에 타오르는 령도자에 대한 뜨거운 마음들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고 하면서 핵폭탄보다 강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낳는 그 뜨거운 인민사랑의 정치로 하여 공화국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고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본사기자

뜨거운 경모의 정 시에 담아

사람들은 시와 노래를 두고 시대의 숨결이며 심장의 토로라고들 한다.

남녘겨레들속에서 높이 울려나오고있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찬가, 그것은 우리 당을 필승불패의 혁명적당, 세상에서 가장 위력한 당으로 되게 하여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칭송이며 그이의 위업을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따를 굳센 의지와 신념의 분출이다.

남녘의 한 시인이 심장으로 읊은 시 《불빛》은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불빛은
장벽이 가로막아
못 보는것 아닙니다
마음의 창문을 열고
바라보는겁니다

저 불빛은
이북의 동포형제들이
《당중앙의 불빛》이라
노래하며 따르는
아 향도의 불빛

이남에 살아도 우리는 압니다
수마가 휩쓴 이 땅에 와닿은
동포애로 뜨거운 구제물자도
저 불빛아래 마련된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7천만을 한식솔로 불러들이는
민족대단결 5대방침도
저 불빛타고 비쳐온것임을

겨레사랑으로 따스한 빛이기에
통일실천으로 찬연한 빛이기에
평양에 들어선
여러 인사들도 첫눈에 매혹되여
목메여 우러러 환희에 젖었나니

피로운 사람에겐
어머니의 눈빛
길을 잃은 사람에겐
등대의 불빛
암흑의 이 세상엔
아 일출의 광망
…
우리 겨레는 저 불빛에서 시작될
통일새날의 려명을 확신합니다
인류는 저 불빛이 비쳐줄
새 천년의 조명을 갈망합니다

빛이여
빛이여
김정일태양의 광망이 빛발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밝은 불빛
이여

본사기자

민족의 가슴속에 새겨진 심장의 웨침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우리 체육인들의 모습은 남조선인민들의 가슴속에 지울수 없는 인상을 남기였다. 더우기 깊은 여운을 안겨준것은 우리 체육인들 누구나가 우승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이 힘의 원천이 되였다고 스스럼없이 웨친 심장의 목소리이다.

남조선언론들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북선수들은 다른 나라 선수들과 각국 취재진들이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라고 하면서 경기에서 영예의 1위를 쟁취한 선수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는것이 저의 기쁨이다.》라고 피력한데 대해 특별히 강조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그토록 마음쓰시며 체육인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전하면서 그로 하여 체육강국을 향하여 줄달음치는 우리 공화국의 승리는 《필연적》이라고 한결같이 평하였다.

남조선의 한 단체 회원은 《정말 감동적이였다. 이북의 체육인들 누구나가 승전의 영광을 제일먼저 김정은최고령도자께 드리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앞에서 생각이 많았다. 공화국의 현실은 위인의 사랑, 당의 기대와 믿음속에서 무명의 선수도 세계패권자로 떠오를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라고 진정을 터놓았다.

본사기자

누구나 안겨살 따사로운 어머니품

백전백승의 자랑스러운 력사우에 또 한돌기의 년륜을 아로새기는 뜻깊은 10월 10일, 비전향장기수들모두가 간고한 옥중투쟁의 나날 한시도 잊은적 없고 언제나 심장속에 간직되여 힘을 주고 용기를 안겨주던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창건기념일이다.

이 아침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내 조국의 푸른 하늘높이 힘차게 나붓기는 당기를 우러르며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 솟구쳐나오는 고마움의 인사,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공화국은 인민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며 그들의 운명을 지켜주는 가장 친근한 어머니당이고 어머니조국이며 당과 조국의 품은 인민들의 참다운 삶과 행복의 요람으로 되고있습니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신념, 통일애국의 의지를 버리지 않았다는 리유로 모진 옥중고초를 겪었다. 수십년간에 걸친 감옥살이는 우리의 생사여부에 대한 소식조차 끊어버렸고 대문을 열어놓고 돌아올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도 다시 만날 생각을 오래전에 단념해버리게 했다.

하지만 력사의 망각속에 묻힌 전사들을 잊지 못하시여 잠 못 이루시며 우리의 운명을 끝까지 돌보아주신분이 계셨으니 그이는 바로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였다.

우리 당이 있는 한 남조선에서 고통받고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을 모두 당의 품으로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치신 로고와 심혈을 어찌 한두마디의 말과 글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조국으로 돌아온 우리들을 따사로운 한품에 안아주시고 감옥에서 잃은 청춘을 되찾아주시려 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 우리 당의 자애로운 은정은 정녕 하늘의 높이에도, 바다의 깊이에도 비길수 없다.

이제는 팔순이 넘어 하루가 다르게 늙어진다는 인생말년이건만 여전히 생기를 잃지 않고있는 나의 모습이다. 이것이 과연 타고난 인생의 복이거나 살뜰한 안해의 보살핌에 의한것이겠는가. 아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품, 어머니당의 따뜻한 사랑이 없었더라면 이 몸은 벌써 세상에 없었을것이다.

충청남도의 어느 한 가난한 소작농의 가정에서 태여나 어릴 때부터 누데기옷을 걸치고 굶주림에 시달리며 품팔이인생으로 하루하루를 이어온 나는 지금도 제땅이 없어 천대와 멸시, 가난속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우리 집안의 모습을 잊을수 없다.

해방후 남조선에서 살 때 어머니가 하던 이야기는 오늘도 잊혀지지 않는다.

《북의 농민들은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의 덕택으로 땅을 무상으로 분여받고 참으로 꿈같은 생활을 하고있다고 하더라. 그분의 치하에서 로동자, 농민들은 공장의 주인,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되였다고 한다.》

바로 이 말에 자식에게만이라도 행복을 안겨주고싶어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그대로 어려있었다.

공화국북반부의 현실을 통해 우리 같은 가난한 농군들이 땅의 주인이 되여 사람답게 사는 길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따르는 길이라는것을 깨닫게 된 나는 미제에 의해 전쟁이 일어나고 인민군대가 마을을 해방하자 주저없이 의용군에 입대하였다.

나는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진리를 깨닫고 참된 삶을 지향하며 성장한 이 땅의 수천수만의 사람들중의 한 사람이다. 원쑤 미제를 쳐부시는 준엄한 조국보위의 길에서 나는 조선로동당원으로, 소대선동원, 중대민청위원장, 당세포위원장으로 자라났다. 그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공부도 하고 당일군으로 사업하게 되였다.

조선로동당은 나를 낳아준 어머니도 꿈으로밖에 그려볼수 없었던 행복을 다 안겨주었다. 그 잊지 못할 나날에 나는 조선로동당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가장 애국애족적인 당이며 로동당을 떠나서는 인민들의 삶과 행복도 미래도 없다는것을 뼈에 새겼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비전향장기수들모두가 그것을 신념으로 간직하였다.

하기에 나는 이 고마운 품을 지키기 위해 주저없이 조국통일을 위한 험준한 투쟁의 길에 나섰고 당기앞에 다진 맹세지켜 근 40년간 갖은 악행과 고문을 꿋꿋이 이겨냈으며 출옥후에는 혈육한점 없지만 공화국의 품에 기어이 안겼던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식들의 얼굴에 피여나는 밝은 웃음을 위하여 어머니가 있다고들 한다. 하나의 기쁨을 주고나면 열가지, 백가지 기쁨을 주고싶어하고 매일 자식의 얼굴에 행복의 웃음을 피워주려 사려깊은 마음을 쓰며 그것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는것이 어머니이다.

그 위대한 어머니가 바로 우리 조선로동당임을 나는 조국의 품에 안긴 후 더욱 절감하였다. 감옥에서 신념을 지킨데 불과한 우리들을 세상이 다 아는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공화국영웅, 조국통일상수상자로 높이 내세워주고 잃었던 청춘을 되찾아주려 그토록 마음쓰고 보살펴주는 끝을 모를 어머니당의 그 사랑속에서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살고있다.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끝까지 보살피며 그들을 위한 일이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 이런 인민대중의 진정한 삶의 품, 따사로운 어머니품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기에 남녘의 동포들도 나를 어머니조국의 품으로 떠밀었다고 생각한다.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고 온 겨레의 열렬한 신뢰와 지지를 받는 위대한 우리 당이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고있기에 조선민족의 오늘은 물론 래일도 끝없이 휘황찬란할것이다.

비전향장기수 홍명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채택모임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17돐과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에서 올리는 축전을 채택하는 모임이 7일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진행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회장과 재중조선공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위대한 어머니 우리 당을 영원히 충정다해 받들어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평양공예전문학교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조로외교관계설정 66돐에 즈음하여

로씨야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외교관계설정 66돐에 즈음하여 알렉싼드르 찌모닌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9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궁석웅 외무성 부상, 심국룡 외교단사업총국 총국장,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 조선로씨야친선협회 위원장인 김진범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조선로씨야친선의원단 위원장인 홍서헌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로친선협조관계의 끊임없는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당국은 상대방을 중상모독하는 삐라살포놀음을 중지시켜야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의 《자유북한운동련합》의 인간쓰레기들이 삐라살포놀음을 벌리려 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9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1075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남조선의 《자유북한운동련합》의 인간쓰레기들이 10일 또다시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는 삐라살포놀음을 벌리려 하고있다.

추물들의 무분별한 망동은 지금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을 받고있다.

추악한 인간오물들이 획책하고있는 삐라살포놀음은 최근 모처럼 마련되고있는 북남관계개선흐름을 가로막아보려는 단말마적발악이다.

우리 총정치국장일행의 인천방문이 있은 후 그러한 망동을 감행하려는데 대해 경악을 금할수 없다.

우리에 대한 심리전으로 감행되는 삐라살포놀음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도발로서 결코 수수방관할수 없다.

남측당국이 우리와 대화를 하고 관계를 풀자고 하면서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상대방을 중상모독하는 삐라살포놀음을 벌리는것은 진정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없으며 우리와 한 말이 다 빈말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지난 시기 리명박《정권》도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망동을 지금처럼 내버려두지 않았다.

우리는 반공화국삐라살포놀음이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된다는데 대해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이번 삐라살포란동을 허용하거나 묵인한다면 북남관계는 또다시 수습할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자들이 지게 될것이다.

우리는 북남관계가 다시 파국에 처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본사기자

독자의 편지

두번다시 태여난 복받은 삶

몇달전 안해의 병이 위급하니 급히 오라는 련락을 받고 저는 서둘러 평양산원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퍼그나 깊어서야 이곳에 도착하였는데 그때까지도 산원에서는 안해의 소생을 위한 구급치료전투가 계속되고있었습니다.

부모들과 형제들은 저를 보자 눈물을 흘리며 소생할 가망이 보이지 않으니 마지막으로 안해의 얼굴을 보는것이 좋겠다고 치료실로 절 떠밀었습니다.

의식을 잃은채 수혈을 받는 안해를 보고서야 저는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는것을 알았습니다. 순간 저는 눈앞이 흐려져 치료실에 더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고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이곳 의료일군들이 안해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긴장한 치료전투를 벌리고있는지 다는 몰랐습니다.

병원책임일군들과 유능한 의료진의 참가하에 협의회가 진행되였고 긴장한 수술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을 꼬바기 새운 의료일군들은 다음날에도 지혈이 전혀 되지 않는 안해의 병상태를 호전시켜보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도 갑자기 출혈이 심해지면 의사, 간호원들은 저저마다 팔을 걷어올리며 자기들의 피를 넣어주군 하였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으로 안해는 3일만에 의식을 차렸습니다. 안해의 기적같은 소생을 두고 온 병원이 제일처럼 기뻐하였습니다.

두번다시 태여난 안해를 보면서 저는 내 나라, 내 조국이 세상에서 제일이고 따사로운 당의 품속에서 행복만을 알며 사는 우리모두는 친형제, 친혈육이라는것을 가슴뜨겁게 느꼈습니다.

지금 저의 가슴은 세상에서 으뜸가는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총대로 굳건히 지켜갈 숭고한 사명감으로 세차게 불타고있습니다.

조선인민군 군관 주영호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최인태 이바라기조선초중고급학교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9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세계자주화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존엄있고 권위있는 불패의 혁명적당

대중적당건설의 본보기를 마련하신 위대한 업적

맑고 푸른 10월의 하늘가에 우리의 성스러운 당기가 세차게 펄럭이고있다.

마치와 낫과 붓을 새기고 휘날리는 우리의 당기, 년대와 년대를 이어 승리만을 기폭에 아로새겨온 당기발을 우러르며 세계 진보적인류가 터치는 환희와 찬탄의 목소리가 하늘가에 메아리친다.

앙골라의 한 인사는 얼마전 조선로동당창건 69돐을 경축하는 모임에서 이렇게 격정을 터뜨렸다.

《우리는 곧 조선로동당창건 69돐을 맞이하게 된다.

조선로동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와 김정일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고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망라한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선군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백승만을 떨칠것이다.》

노르웨이공산당 외스트폴드주위원회 위원장은 세계 진보적인류는 10월 10일에 즈음하여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당건설령도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이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는 조선로동당의 세련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다라고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근로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존엄높은 혁명적당!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이 있는것이다.

조선로동당규약 서문에는 이렇게 밝혀져있다.

《조선로동당은 로동자, 농민, 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가운데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 선진투사들로 조직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 근로인민대중의 대중적당이다.》

이것을 통해서도 독창적인 당건설사상을 내놓으시고 혁명적당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원불멸할 업적이 숭엄하게 안겨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요구와 우리 혁명의 구체적현실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대중적당건설리론을 내놓으심으로써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뉴대를 공고히 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때에만 불패의 당으로 될수 있다. 우리 시대는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자주성의 시대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근본리익과 자주시대의 요구,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시여 로동자와 농민, 근로인테리를 구성성분으로 하는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을 건설할데 대한 로선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지식인을 상징하는 붓대가 우리 당마크속에 거연히 솟아올랐을 때 로동계급의 당들자체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세상에 지식인이 속해있지 않는 진보적당은 없지만 자기 당마크에 붓을 새겨놓은 당은 오직 우리 당밖에 없다.

지구상에 공산당지도자들이 많아도 당마크에 붓을 그려넣도록 하신 지도자는 오직 김일성동지뿐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 그렇게 하신것은 천만번 정당한것이다라고 한 유럽의 한 인사의 말에는 그이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에 대한 인류의 다함없는 칭송이 그대로 어려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이민위천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우리 당을 인민대중속에 뿌리박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시였다.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는 첫 시기부터 우리 당을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해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다.

특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세기 90년대에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혁명적당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명확한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집권당이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것은 당건설과 활동을 바로하지 못한데 있다고 하시면서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공고히 하는 문제, 당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다지는 문제, 당안에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문제,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문제, 사상의 일색화를 실현하는 문제, 령도의 계승문제를 옳게 해결하는 문제 등 혁명적당건설과 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환히 밝혀주시였다. 이것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자주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혁명적당건설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켜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천명하실수 있는것이였다.

복잡다단한 세계정치정세속에서도 오늘 우리 당이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승승장구하고있는것은 수십성상 우리 당의 대중적지반을 철통같이 다져오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당건설령도업적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여 조선로동당은 험난한 력사의 폭풍우속에서도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이 땅우에 세기적인 전변을 안아왔다.

오늘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진두에 높이 모시여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뉴대는 더욱 공고화되고있다.

대중적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승리의 력사는 세계 진보적정당들이 따라배워야 할 귀중한 교과서로 된다.

사회주의가 좌절된 여러 나라 당들의 지도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대로 당건설과 활동을 옳바로 하였더라면 당이 붕괴되고 사회주의가 좌절되는 비극적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것이라고 자기들의 심정을 터놓았다. 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사회주의를 재건하기 위한 투쟁의 교과서, 정의의 보검으로 삼을것을 결의다지였다. 세계 진보적정당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적당건설리론과 경험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적극 따라배워 당건설과 활동에서 전진을 가져오기 위해 힘쓰고있다.

참으로 근 70년을 헤아리는 우리 당의 력사는 로숙하고 세련된 사회주의집권당으로, 인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존엄높고 권위있는 혁명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온 승리의 력사, 영광스러운 로정으로 수놓아진 자랑찬 력사였다.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영광의 기치인 조선로동당의 억센 기상과 더불어 혁명적당건설력사에 쌓아올리신 절세의 위인들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전영희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당

◇ 만사람의 심장을 틀어잡은 노래 《내 심장의 목소리》는 이 땅에 태를 묻고 자라는 천만 자식들이 어머니 우리 당에 드리는 진정의 웨침이며 로동당찬가이다.

어머니당!

오랜 세월 가정의 울타리안에만 머물러있던 어머니라는 그 부름이 우리 당의 상징으로, 대명사로 불리우고있다. 장구한 인류력사에도, 수백년을 헤아리는 세계정당사에도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일이였다.

세계가 부러워하고 인류가 경탄하고있다.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서기는 이렇게 찬양하였다.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것은 조선로동당의 기본특징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과 혈연적뉴대를 이루고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는 어머니당으로 존엄떨치게 되였다.》

그렇다. 피도 숨결도 나누어주고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을 주는 우리 당의 크나큰 품을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어머니로밖에는 달리 부를수도 노래할수도 없다는것이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진 인생의 철리이다.

◇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우리 당을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지난 시기에는 당을 주로 계급투쟁의 무기로만 보았다. 결과 적지 않은 당들이 정권을 쥔 다음 행세하고 권력을 람용하는 관료당으로 전락되다나니 자기의 생명력을 잃게 되였다.

로동계급의 당과 대중과의 관계는 령도를 하고 받는 관계인 동시에 생명을 주고받으며 운명을 보살피고 의탁하는 관계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당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당이며 당은 인민에게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고 인민은 당에 전적으로 자기의 운명을 의탁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게 된다는 사상을 밝히시고 한평생 우리 당을 어머니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손잡아 이끄시였다.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 혁명적당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도록 령도하여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 이것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변함없는 우리 당활동의 원칙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어머니된 심정으로 언제나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빛내여주어야 합니다.》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은 만사람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지고 보살피는 조선로동당을 인민들은 어머니당이라 부르며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있다, 이러한 대중적지반을 가진 당이 언제나 불패이라는것은 력사가 보여주는 진리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세상사람들이 한결같이 공인하듯이 우리 당의 정치는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일관된 인덕정치이다.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면서 철두철미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당을 그 누가 따르지 않으랴.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은 위대한 힘을 낳는다. 세기를 이어 지속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속에서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가 굳건한것도, 이 땅우에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게 된것도 어머니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더욱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조선로동당이 있기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당건설의 진로를 밝혀준 명언

명철한 《진단》

주체78(1989)년 11월 전 국제그리스도교민주당 위원장이며 이딸리아국회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플라미니오 삐꼴리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서방의 명망높은 부르죠아정객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게 된데는 그럴만 한 사연이 있었다. 당시 동유럽에서는 쏘련이 주도하는 쎄브에 망라되여있던 마자르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등 비정상적인 사태들이 발생하고있었다.

삐꼴리는 동유럽나라들에서 일어나고있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비롯한 여러 국제문제들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기 위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령의 몸으로 먼길을 찾아온 삐꼴리를 따뜻이 맞아주시고 그와 오랜 시간에 걸쳐 진지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견해에 대하여 듣고싶어하는 삐꼴리에게 동유럽나라들이 진통을 겪게 된것은 자주성이 없었기때문이라고 까밝히시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25년전, 30년전에 쎄브에 든 나라들의 운명을 예측하였기때문에 우리 나라는 쎄브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큰 나라들을 따라다니면 마지막에는 그렇게 되는 법입니다. …

삐꼴리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벌써 수십년전에 쎄브에 망라된 나라들의 장래운명에 대해 《진단》하시였던것이다.

심오한 진리를 순간에 깨닫도록

《주석동지, 당을 강화하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언제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한 어느 한 나라의 당대표단 단장이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은 자리에서 올린 질문이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암중모색해왔다.

겹쌓이는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사회주의조선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조선로동당에 대하여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며 그 비결을 알고싶어 못내 마음써온 그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대어린 눈길로 우러르는 대표단 단장과 성원들을 바라보시며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대표단단장에게 꿀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는가고 물으시였다.

뜻밖의 물으심인지라 단장은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꿀벌들은 왕벌을 중심으로 한데 뭉쳐 살아간다고, 물론 그것은 본능에 의한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당을 강화하는 문제를 그에 비유하여 말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꿀벌들이 왕벌을 중심으로 떼를 짓고 규률있게 사는것처럼 집단안에는 반드시 중심이 있고 규률이 있어야 한다고, 당을 강화하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수령을 중심으로 전당이 굳게 통일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대표단성원들은 혁명하는 당의 백전백승의 비결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에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하나의 자연현상에 비유하여 한순간에 깨우쳐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통속적이고도 명쾌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탄복해마지 않았다.

높고낮은 당이 따로 없다

주체64(1975)년 6월 어느날이였다.

당시 유고슬라비아를 공식친선방문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상봉한 이 나라 지도자 찌또는 그이께 조선은 누구의 눈치도 보는것이 없이 제 할 말을 다하며 배심있게 나아가고있다고 말하며 무척 부러워하였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패권주의를 반대하여 자치제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지만 이러저러한 압력과 시비로 골머리를 앓고있다고 마음속고충을 숨김없이 터놓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매개 나라 당은 자기 당의 사상, 자기 당정책으로 당원들을 무장시켜야 하며 다른 당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안된다고,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며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는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세계에는 높고낮은 당이 따로 없으며 아버지당과 아들당도 있을수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서 큰 충격을 받은 찌또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당건설과 국가활동에서 자주성을 튼튼히 지켜나갈 결심을 굳게 다지였다.

본사기자

10월과 조선로동당

이 세상에 수많은 정당들이 있지만 조선로동당처럼 하나의 사상의지에 기초한 불패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고 사회주의위업, 인류자주위업의 전진과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은 없다.

하기에 진보적인류는 력사의 온갖 풍파에도 끄떡없이 주체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전진하여온 우리 당의 자랑찬 로정을 돌이켜보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7돐과 당창건 69돐을 의의있게 경축하고있다.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타이와 뻬루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조선로동당창건 69돐경축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였다. 체스꼬, 도이췰란드에서는 경축모임이, 기네에서는 강연회와 영화감상회가,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는 업적토론회가 진행되였다.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야로슬라브 까프까는 조선로동당이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압살책동속에서도 자기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면서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있는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있기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도이췰란드공산당 위원장 토르스텐 쇠비츠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김정일동지는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조선로동당을 더욱 강화발전시키신 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시다.

그이께서는 당을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어머니당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였다.

조선이 지난 세기말 최악의 시련을 이겨낼수 있은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도이췰란드공산당은 조선로동당의 위업을 적극 지지할것이다.

인도네시아다양성당 전국지도리사회 총서기는 업적토론회에서 연설하면서 오늘 세계에서 백승의 당으로 위용떨치고있는 당은 조선로동당뿐이다,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에 대하여 말할 때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뛰여난 정치실력과 비범한 령도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앞으로도 영원히 불패의 위력을 지닌 당으로 백승떨칠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많은 나라의 진보적정당, 단체들과 각계인사들은 성명, 담화를 발표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당건설령도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인도네시아의 한 인사는 담화에서 당창건 69돐을 맞는 조선로동당과 전체 당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고 하면서 이렇게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시고 김정일령도자께서 이끌어오시였으며 김정은원수에 의하여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는 조선로동당은 근 70년간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향도한 강위력한 정치조직이다.

조직력과 단결력, 전투력에 있어서 조선로동당과 견줄만 한 당은 이 세상에 없다.》

쓰르비아의 새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총비서는 조선로동당을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건설리론과 령도업적은 모든 진보적정당들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참다운 교과서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사상과 령도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더욱 빛을 뿌리고있으며 조선로동당의 위력은 백방으로 강화되고있다고 하였다.

벌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따쥐끼스딴공산당 위원장, 베닌사회주의당 부위원장,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 등 각국의 정계인사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쌓아올리신 혁명적당건설령도업적을 높이 칭송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조선로동당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하였다.

벌가리아조선친선협회에서 《당창건의 기초축성》, 《조선로동당의 창건》, 《조선로동당이 걸어온 길》이라는 제목의 글들을 편집한 불레찐특간호를 발행하였다.

불레찐은 글들에서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절세위인들의 령도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언급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을 창건하시고 그 강화발전을 위한 믿음직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받들어 당을 선군혁명위업의 강력한 향도적력량으로 더욱 굳건히 다지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시였다. 그이께서 뜻밖에 서거하신 후 조선인민은 김정은동지를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로골화되는 압살책동속에서도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승리에로 이끄신다.》

그렇다. 세계 진보적인류가 한결같이 칭송하듯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쌓으신 혁명적당건설업적은 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으며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다.

김철룡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위대한 당

여러나라 신문 특집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 신문이 특집하였다.

라오스신문 《빠싸손》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모시고 《김정일, 불멸의 당건설업적》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이끄시는 전행정에서 당을 명실공히 그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삼으시고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주석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조선로동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내세우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다.

그이의 령도에 의하여 조선로동당은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 행동의 통일체로 되였다.

세계사회주의운동이 곡절과 진통을 겪던 시기 조선로동당의 조직사상적통일과 단결이 더욱 강화된것은 김정일령도자의 비범한 통찰력과 원칙적이며 단호한 정치적결단, 원숙한 령도적수완의 고귀한 결실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시였다.

사랑과 믿음의 정치, 광폭정치를 펼치신 그이에 의하여 조선로동당은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빛나게 실현하고 온 사회를 화목한 대가정으로 전변시켰으며 평범한 날에나 준엄한 날에나 광범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향도해나가는 불패의 당으로 위력떨쳐왔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선군혁명위업의 향도적력량으로 다지시였다.

또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을 정신력의 강자들로 키워 조선로동당의 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세기적인 변혁과 기적을 안아오시였다.

그이께서 당건설위업에 쌓으신 업적은 끝없이 승승장구하는 사회주의조선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이 나라 신문 《꽁탑빠싸손라오》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부대를 시찰하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그이의 당령도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실었다.

딴마신문 《더 뉴 에이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을 담은 사진문헌을 모시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을 철칙으로 삼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고있다.

당이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있는것은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들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기때문이다.

조선에서는 무료교육제와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으며 오래전에 세금제도가 철폐되여 사람들이 세금이라는 말조차 모르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투철한 인민관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신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각하께서 계시였기에 조선로동당이 인민들로부터 어머니당으로 불리우게 되였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선대수령들의 뜻을 받들어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다.

인민에 대한 투철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신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련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방글라데슈신문 《방글라 타임스》는 우리 당이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백승만을 떨치고있는데 대하여 소개하는 글을 편집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7돐과 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가 9월 30일 인터네트홈페지에 특집하였다.

홈페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1964년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주체의 당건설위업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그이에 대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열화같은 흠모심,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심의 반영으로 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을 조선혁명의 참모부로 강화하시고 그 두리에 군대와 인민을 하나로 굳게 결속시키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선군혁명을 힘차게 전진시켰다.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는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영원히 높이 모시며 그이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업적은 세기를 이어 길이 전해질것이다.

주체의 당건설위업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빛나게 완성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영원히 백승만을 떨칠것이다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민주꽁고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총비서인 민주꽁고-조선친선 및 련대성협회 위원장 오떼떼 가스똥 음보요가 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조선인민과 함께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진보적인류의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의 창건 69돐을 뜻깊게 맞이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로동당은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위대한 당인것으로 하여 창건초기부터 각계층 인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인민의 리익을 절대시하고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구현한 김일성주석의 인민적인 자주정치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조선에서 세기적인 변혁을 가져왔다.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장구하고도 시련에 찬 길을 헤쳐온 조선로동당은 또 한분의 걸출한 령도자이신 김정일각하에 의하여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지난 세기 말엽 여러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집권당들이 변질되고 사회주의가 좌절될 때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당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명확한 해답을 주시였으며 조선로동당을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강위력한 당으로 건설하는데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령도자께서 계시였기에 조선로동당은 그 어떤 실패와 좌절도 모르고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올수 있었으며 세계혁명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자기의 국제주의적의무를 다할수 있었다.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은 오늘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천품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위대한 정치가이신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받고있다.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는 조선당과 인민의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으며 진보적인류는 걸출하신 그이께서 계심으로 하여 세계자주화위업수행의 밝은 앞날을 내다보고있다.

* *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조정서기 이.에이.비디아쎄케라가 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은 독특한 력사를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후 우리 나라가 북과 남으로 분렬되였으며 미제가 도발한 전쟁으로 재더미로 변한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로동당과 인민을 전후복구건설에로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오늘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시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진두지휘하고계신다.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는 세계평화애호인민들과 함께 조선로동당창건 69돐을 열렬히 축하한다.

조선인민의 앞으로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한다.

【조선중앙통신】

ㄱ-41157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